

중앙대학교 FUQ 제4회 영화 상영회



일시 : 2018년 11월 29일 목요일, 늦은 7시

장소 : 중앙대학교 310관 B602

상영 영화 : <달힌 문 뒤에는(2016)>

함께하는 연사 : 영화 평론가 유지나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X 중앙대학교 FUQ

FUQ란?

Feminist Unites with Queers의 줄임말로,
중앙대학교의 페미니스트와 퀴어 공동체입니다.
FUQ는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인권 감수성의 향상을 위해 매 학기
강연과 부스 캠페인, 영화 상영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FUQ를 함께 꾸려가는 단위는 여섯 단위는
여성주의 교지 **녹지**, 총학생회 **성평등위원회**,
성소수자 동아리 **레인보우 피쉬**, 여성주의 학회 **여백**,
교지편집위원회 **중앙문화**, 해방의 인문학을 추구하는 **자유인문캠프**입니다.

상영하는 영화 : <달힌 문 뒤에는(2016)>

영국 템스 벨리 경찰서 가정 폭력 전담팀의 내부 자료 제공이라는
유례없는 협조와, 이들이 담당한 사건 피해당사자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달힌 문 뒤에는>은 가정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범죄인
가정 폭력에 관해 특별한 통찰을 주는 영화다.
사랑하던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느끼게 되는 복잡한 심경,
경찰이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지만 계속해서 풀려나는 장면들.
영화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 서는 고통이 얼마나 큰 들,
정의는 저절로 구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준다.
줄거리 제공 : 여성인권영화제 FIWOM

함께하는 연사 : 영화평론가 겸 교수 유지나

영화평론가,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여성인권영화제 1회~ 추진/자문위원

여성평화외교포럼 이사

<씨네포럼> 편집장

서울영상위원회 이사

청룡영화상 영화평론상(2000)

세계문화다양성 증진 프랑스 학술훈장 (2004)

동국대학 명강의상(2005) 등...